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에 주목

■ 기업/산업분석

대림산업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글로벌기업분석: BOE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로보틱스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 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 분석 | 박정우

시황 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 분석 | 오창섭

계량 분석 | 안혁
중국 시장 | 최설화
크레딧 분석 | 김기명

스몰캡 전략 | 정훈석
베트남 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 분석 | 송승연
글로벌 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 전략 | 정현종
글로벌 기업 | 김시우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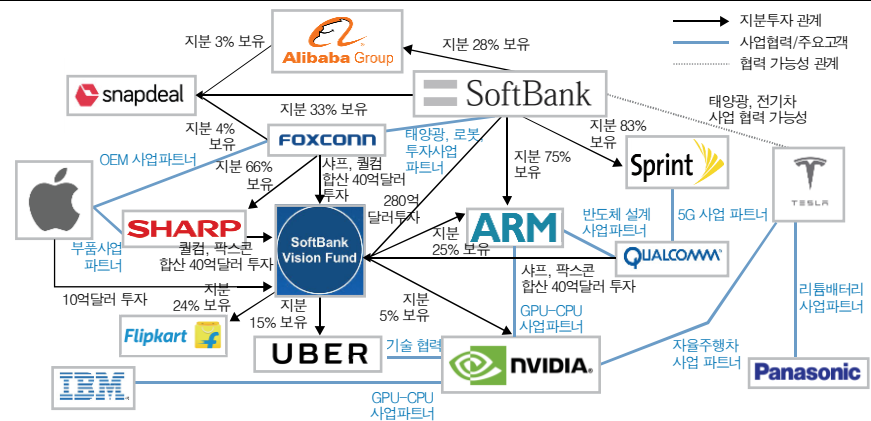
소프트뱅크 연합 내 기업 간 사업협력 강화 움직임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
스프린트 5G 조기 상용화, 우버 자율주행사업 강화, 월마트와 협력 배경 분석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의 경쟁력과 영향력 지속 상승 전망

소프트뱅크 연합 기업들 간의 사업관계 강화 움직임에 주목

4차 산업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소프트뱅크(Softbank) 기업연합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은 일본의 IT 지주회사 소프트뱅크그룹을 중심으로 사업적, 자본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기업 집단이다. 공식적으로 소프트뱅크 연합이 존재한다는 발표는 어디에서도 없었지만, 지난 2월 미국 통신 기업 스프린트(Sprint)가 실적발표에서 소프트뱅크생태계(ecosystem)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 연합의 존재는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주행차, IoT, 5G 네트워크 등 4차 산업 사업을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뱅크그룹, 엔비디아(Nvidia), ARM홀딩스 등 연합의 중심 기업들은 사용자 디바이스 영역에서의 AI 컴퓨팅이 구현되는 엣지컴퓨팅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다. 우리는 소프트뱅크 연합의 기업들 중 다수가 사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능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난 소프트뱅크 연합 기업들 간 사업관계 강화의 주요 사례들에 대해 분석한다.

[그림 1]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소프트뱅크 에코시스템)



주: 확대본은 그림 8 참고, 자료: 한국투자증권

Scene #1: 기업연합을 통해 가능한 스프린트 5G 조기 상용화

스프린트 2019년 전국 단위 5G 서비스 계획 발표

미국 통신 기업 스프린트의 5G 사업에서 소프트뱅크 연합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스프린트는 지난 2월 10~12월 분기 실적발표에서 2019년에 전국 단위 5G 서비스 상용화를 공식 선언했다. AT&T, Verizon 등 선두 통신기업들이 아직 5G 전국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3위 사업자 스프린트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스프린트 5G의 주력 주파수 대역은 2.5GHz

우리는 스프린트의 공격적인 5G 사업이 소프트뱅크 연합 내 엔비디아, ARM홀딩스, 퀄컴(Qualcomm)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스프린트가 5G 서비스를 경쟁기업 대비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이유는 5G의 주력 주파수 대역으로 2.5GHz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5GHz 주파수는 기술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수용 용량은 28GHz 대비 열위에 있지만, 전파의 도달 범위가 넓어 28GHz를 활용한 5G 대비 투자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표 1> 주요 통신 사업자 별 5G 통신 구축 주파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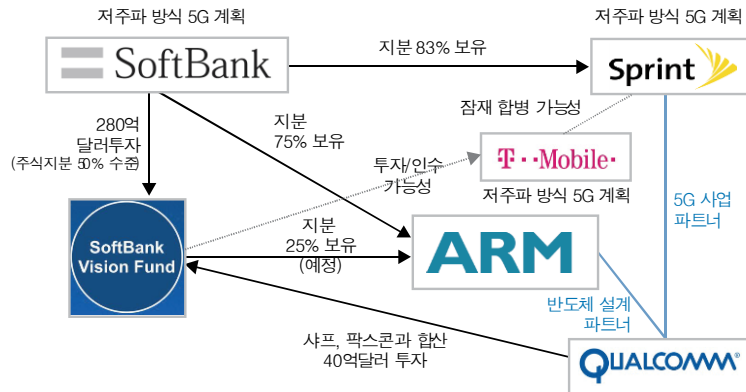
통신사	5G 통신망 주력
AT&T	28GHz
버라이즌(Verizon)	28GHz
스프린트(Sprint), Softbank	2.5GHz/28GHz(일부 투자)
T-Mobile	600MHz
KDDI, Docomo	28GHz
SKT, KT	28GHz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2.5GHz의 단점을 연합 기업들의 엣지컴퓨팅 기술로 보완할 전망

스프린트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는 2.5GHz 주파수의 약점을 디바이스 영역의 컴퓨팅 성능 개선으로 보완하려 한다. AI 컴퓨팅을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는 고성능 GPU 반도체를 제조하는 엔비디아, 모바일 CPU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 독과점 사업자 ARM홀딩스, 전파의 전송능력을 기기에서 향상시키는 HPUE(High Powered User Equipment)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퀄컴 등이 주력 조력자로 판단된다. 또한, 스프린트는 실적발표를 통해 글로벌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기업 우버(Uber), 디디추싱(DiDi Chuxing), 위성통신 사업자 원웹(OneWeb) 등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프린트의 5G 사업은 엣지컴퓨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림 2] ‘소프트뱅크-스프린트’ 주변 기업 관계도



자료: 한국투자증권

Scene #2: ARM 사외이사로 선임된 스프린트 CEO 마르셀로

ARM과 스프린트의
협력 더욱 강화될 전망

스프린트의 CEO 마르셀로 클라우르(Marcelo Claure)가 ARM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이 지난 3월초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됐다. 소프트뱅크 연합 내 경영진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로 사업적,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마르셀로 CEO는 지난 12월 우버(Uber)의 사외이사로도 임명됐다. 이는 소프트뱅크그룹이 비전펀드(Vision fund)를 통해 우버에 투자한 이후 결정된 사안이었다. 소프트뱅크그룹(손정의 회장 주도)의 전체 지휘 아래 연합 간의 협력은 향후에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소프트뱅크그룹 수장 손정의 회장과 스프린트 CEO 마르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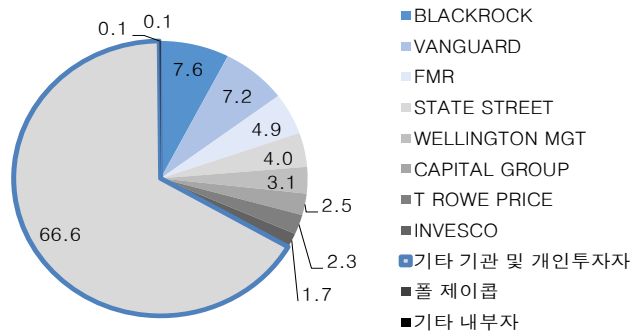
자료: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Scene #3: 가능성이 높아진 소프트뱅크의 퀄컴 인수전 참여

소프트뱅크, 퀄컴 지분 확보 시, 협력 관계 가속화 예상

최근 소프트뱅크그룹은 협력 관계에 있는 퀄컴의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신 및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Broadcom)의 퀄컴 인수 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퀄컴 전 CEO 폴 제이콥스(Paul Jacobs, 창업주 아들)의 회사 인수 시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이콥스 전 CEO의 퀄컴 지분 인수(경영권 확보)의 자금적 지원자로 소프트뱅크그룹(혹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소프트뱅크그룹의 퀄컴 지분 참여가 이뤄질 경우, 퀄컴과 연합 내 기업의 사업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4] 퀄컴 지분구조: 70% 이상이 기관투자자, 제이콥스 전 CEO 지분은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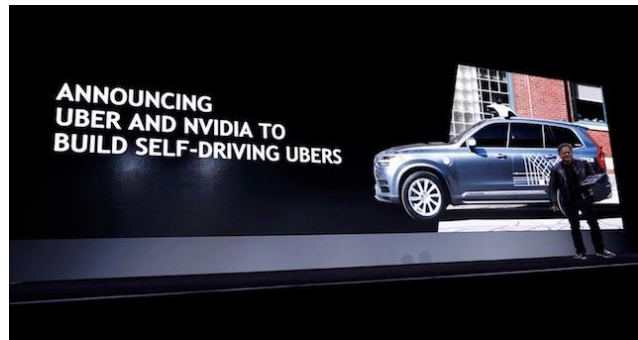
주: 2018/03/21 기준
자료: 블룸버그, 한국투자증권

Scene #4: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 변화에 주목

우버,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받은 이후 자율주행차 사업 공격적 자세로 전환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전략 변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우버는 자사 자율주행시스템의 외부 판매 결정과 첫 번째 고객으로 일본의 도요타(Toyota)와 기술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외부로 사업화하겠다는 의미에서 공격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러한 우버의 공격적 사업 자세가 2017년 12월 소프트뱅크그룹(비전펀드)의 지분 인수 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한다. 또한, 우버의 경우 연합 내 핵심기업 엔비디아와 과거부터 기술적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후 우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면서 ‘핵심 부품: 엔비디아 - 시스템/솔루션: 우버’의 구성으로 자율주행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글 등 선두 인터넷 기업들에 경계심이 높은 완성차 기업들에게 우버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그림 5] 엔비디아와 우버, 자율주행차 기술 협력 강화



자료: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보행자 사망사고로
사업속도는 늦어지겠지만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어

다만,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속도는 지난 19일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사고 이후 우버와 도요타 모두 잠정적으로 자율주행테스트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소프트뱅크 연합에서 우버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Scene #5: 긴밀해지고 있는 월마트

월마트,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연합과
협력 확대 중인 것으로 판단

소프트뱅크 기업연합과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Walmart)와의 관계가 다방면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월마트는 글로벌 유통산업에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연합의 기술과 시장 지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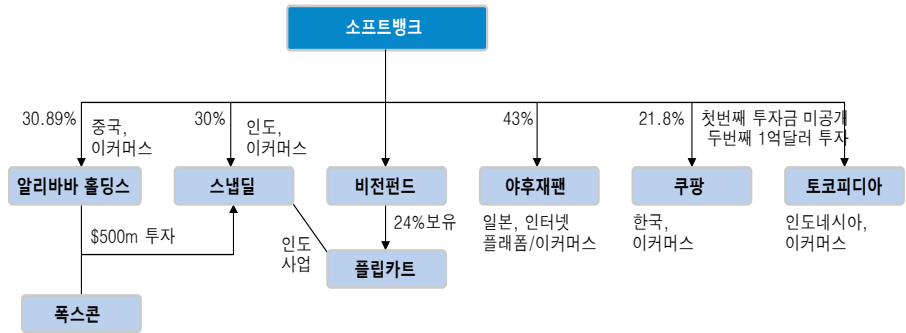
인도 1위 이커머스 사업자
플립카드 지분, 소프트뱅크
로부터 인수 계획

월마트는 소프트뱅크그룹이 비전펀드를 통해 보유 중인 인도의 전자상거래 1위 사업자 플립카드(Flipkart)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플립카드의 지분 24%를 보유(2017년 8월 취득)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최소 충족 수준의 지분을 제외한 다수 주식을 월마트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는 비전펀드로부터의 지분 인수 이외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로부터도 추가 지분을 사들여 30% 이상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플립카드 지분매각 이후에도
소프트뱅크 연합과 월마트의
사업적 협력 지속 예상

우리는 월마트가 플립카드 지분 취득 이후에도 소프트뱅크그룹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소프트뱅크는 여전히 아시아 전자상거래 통합 사업 모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주요국의 선두 전자상거래 사업자 각각에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지위 확보(그림 6)가 동사의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성장 인도 시장 내 1위 업체 플립카드는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일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Alibaba), 월마트, 플립카드 등과 동시 다발적으로 협력하며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항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소프트뱅크그룹의 아시아 전자상거래 사업자 투자 구조도(월마트 참여 이전)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월마트, 우버 서비스 활용해
배송 서비스 확대**

미국 내 물류서비스에서 월마트와 우버의 협력도 흥미롭다. 월마트는 자사 전자상거래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우버의 차량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식료품) 배송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현재 미국 내 6개의 도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의 도심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송 서비스의 지역적 확장 과정에서 우버의 서비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 연합인 우버와의 협력을 통해 월마트는 자체 물류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아마존과 경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림 7] 월마트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우버의 서비스 적극 활용 계획



자료: 월마트, 한국투자증권

결론: 인터넷 기업에게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소프트뱅크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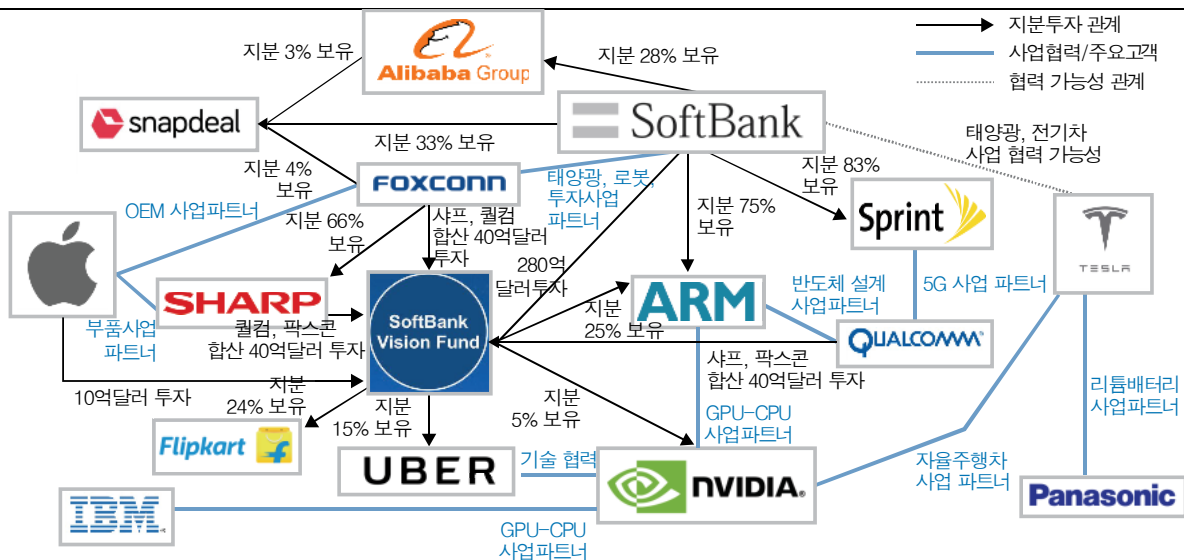
소프트뱅크 연합,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 진영으로 강력히 부상 중

연합 내 기업들의 사업협력 강화로 소프트뱅크 연합은 현재 4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 진영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중심의 클라우드컴퓨팅과 디바이스 중심의 엣지컴퓨팅의 기술 경쟁, 한 기업이 대다수 사업을 수행하는 수직적 통합모델과 다수 기업이 다양한 사업 관계를 맺는 수평적 협력 모델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의 경쟁력과 영향력 지속 상승 전망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프트뱅크그룹이 ‘월마트의 배송이 우버의 무인자율주행 서비스로 이뤄지고, 해당 자율주행 차량에는 엔비디아, ARM, 퀄컴의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탑재되고, 스프린트의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리스크 확산, 컴퓨팅 능력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면 소프트뱅크 연합의 시장 내 경쟁력과 영향력은 중단기적으로 지속 상승 전망이다.

[그림 8] 소프트뱅크 기업연합(소프트뱅크 에코시스템)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소프트뱅크그룹 연합 내 추천기업

기업(티커)	투자포인트
소프트뱅크그룹(9984 JP)	ARM 홀딩스, 엔비디아, 알리바바 등 자회사 중장기 지분가치 상승
엔비디아(NVDA US)	컴퓨팅 고도화 수요 GPU에 집중, 클라우드 및 엣지컴퓨팅 시장 주도적 창출
알리바바(BABA US)	AI 컴퓨팅 기술 확보로 아마존과 같은 고성장(이커머스, 클라우드사업) 지속 전망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대림산업(000210)

경영새신 선포

주주총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 공식화, 일감 몰아주기 해소

- 전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킴. 내부거래 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검토/심의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연초 대림그룹은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끊고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등 경영 투명화 계획 선포
- 올해부터 신규 계열거래를 하지 않고 기존 계열거래도 원천적으로 중단
- 이해육 부회장은 100% 소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정리할 계획. 호텔 개발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는 사업은 분할해 대림산업에 무상 기증, 이슈가 없는 사업부는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시킬 계획
-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모든 내부거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뀜

순환출자 해소

- 13일,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 오라관광이 가진 자사 주식 4.3%를 371억원에 취득 결정. 오라관광은 이로써 대림코퍼레이션 주식을 전량 처분하게 됨
- 30일, 대림코퍼레이션은 해당 지분 매입을 완료하게 되며 순환출자 해소. 만약 지분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대림코퍼레이션은 그간 순환출자 구조로 불가능했던 대림산업의 지분을 확대가 가능하게 됨

경영 투명성 제고, 과거와 다른 사회적 요구

- 내부거래 근절로 대림산업의 경영 효율성, 수익성 강화 예상
- 그간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약점이 많은 지배구조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과거와 다른 강도라는 점에서 향후 혁신은 지속될 전망
-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것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십억원)	9,514	9,854	12,333	10,327	10,524
증가율(%)	2.4	3.6	25.2	(16.3)	1.9
영업이익(십억원)	272	419	547	574	655
순이익(십억원)	207	265	496	581	664
EPS(원)	5,352	6,868	12,884	15,094	17,236
증가율(%)	NM	28.3	87.6	17.1	14.2
EBITDA(십억원)	359	528	663	694	781
PER(x)	12.5	12.7	6.4	4.9	4.3
EV/EBITDA(x)	9.0	8.5	5.9	5.2	4.4
PBR(x)	0.6	0.7	0.6	0.5	0.5
ROE(%)	4.8	5.9	10.3	10.9	11.2
DY(%)	0.4	0.3	1.2	1.4	1.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130,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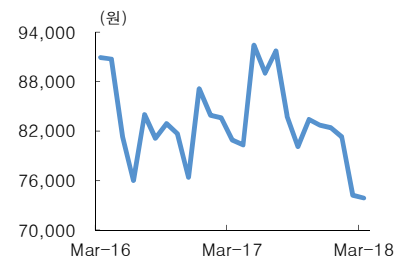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3/21)	2,485
주가(3/21)	73,900
시가총액(십억원)	2,572
발행주식수(백만)	35
52주 최고/최저가(원)	93,500/70,2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14,989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76.9/31.2
주요주주(%)	대림코퍼레이션 외 6인 23.1
	국민연금 13.5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8)	(9.0)	(10.0)
KOSPI 대비(%p)	(3.1)	(12.3)	(24.1)

주가추이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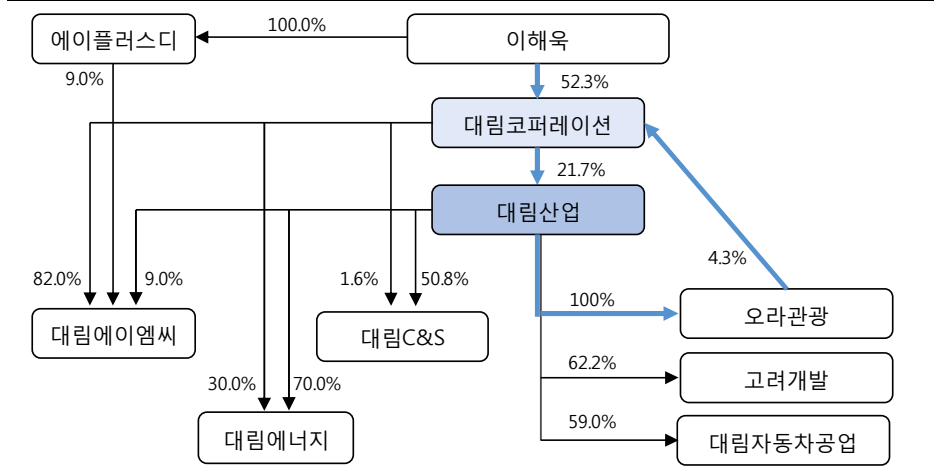
이경자

kyungja.lee@truefriend.com

김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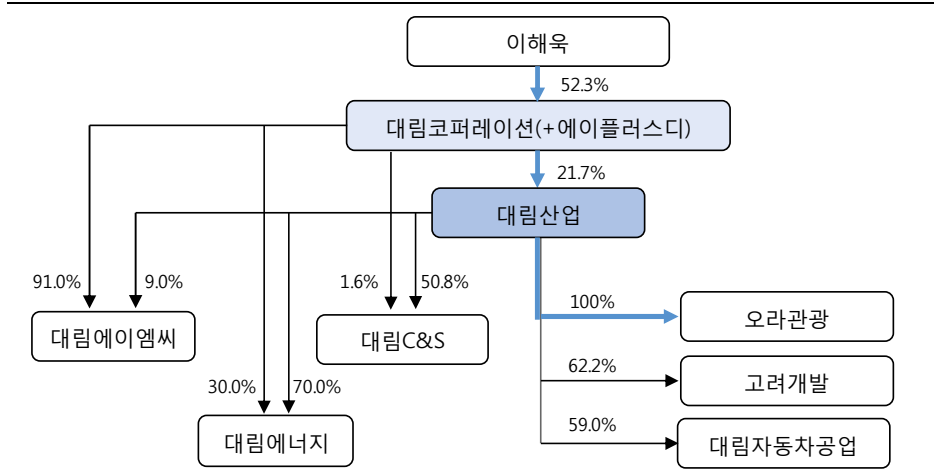
chiho.kim@truefriend.com

[그림 1] 기존 지배구조



주: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주는 이해육 52.3% 외에 대림문화재단 6.2%, 대림학원 3.2%,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0.6%, 이해승 0.5% 등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2] 3월 말 예상 지배구조



자료: 각 사, 한국투자증권

BOE(000725 CH)

한국 패널업체의 아성을 넘보다

전세계 1위 패널업체가 되기 위한 준비

BOE는 중화권 1위 패널업체로 2017년 4분기 전세계 면적 기준 대형 LCD패널 시장점유율 3위업체다. 중소형 OLED는 투자를 가속화해 2020년까지 6세대 OLED capacity 144K/월 규모를 갖출 전망이어서 이미 LG디스플레이의 투자 계획 60K를 넘어섰다. 10.5세대 초대형 LCD 투자도 동시에 진행돼 2019년에는 세계 최대 LCD패널 capacity를 보유하게 된다. 매출액 기준 디스플레이패널 점유율 1, 2위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패널업체다.

OLED패널 양산으로 매출액 큰 폭 증가 예상

중국의 디스플레이패널 투자의 중심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LCD에서 OLED로 전환되고 있다. BOE는 작년부턴 플렉서블 OLED패널 라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BOE B7와 B11공장이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면서 매출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패널 생산량을 결정하는 생산 수율과 가동률이 아직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스마트폰업체 등 고객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다면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업체향 저가형 rigid OLED패널 물량부터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미국 스마트폰업체향 패널 공급 가능성도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축이 되어가는 과정

BOE의 시가총액은 패널업체 중 1위이며 LG디스플레이의 3배 이상이다. 2017년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이 LG디스플레이의 약 60% 수준이고 PBR은 2.3배임을 고려했을 때(LG디스플레이 2017년 PBR 0.7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LCD패널 가격 하락으로 2018년 이익 증가율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규모 OLED, LCD패널 라인투자 계획을 확정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 내 BOE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성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정당화될 것이다.

	매출액 (백만위안)	영업이익 (백만위안)	순이익 (백만위안)	EPS (위안)	증감률 (%)	EBITDA (백만위안)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12	48,348	2,263	1,636	0.0	(47.1)	10,302	41.9	7.1	0.9	2.1	0.5
2016.12	68,436	2,653	1,883	0.1	17.4	12,960	37.0	7.9	0.9	2.4	1.5
2017.12F	95,536	10,673	7,885	0.2	320.4	25,397	25.0	9.9	2.3	9.1	0.5
2018.12F	124,905	12,775	10,375	0.3	28.2	30,446	19.5	8.3	2.1	11.0	1.1
2019.12F	161,002	16,557	13,615	0.4	28.5	36,135	15.2	7.0	1.9	12.8	1.3

주: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Stock Data

CSI300(3/22)		4,020
주가(3/22)		5.68
시가총액(십억위안)		195.9
52주 최고/최저가(위안)		6.77/3.27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위안)		6,391
유동주식비율(%)		61.9
주요주주(%)	북경시 국유자산관리센터	12.0
	CQ YUZI Photoelectric	7.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4	42.0	71.1
CSI300 대비(%p)	1.2	35.5	46.8

주가추이



자료: Bloomberg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매도
비중(%)	80.0	15.0	5.0

자료: Bloomberg

블룸버그 평균목표주가 (위안)

7.1

주: 20개 증권사 평균

김정환

junghwan.kim@truefriend.com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시장별 외국인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

- 뉴욕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연기금, 금융투자 등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며 장중 2,508P까지 상승했으나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2,500P선 아래로 밀려나며 마감. 코스닥도 장중 890P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투신과 기타법인 등 일부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오후 들어 하락반전 후 낙폭을 확대하며 870P선을 이탈하는 등 등락을 거듭함. 최근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매도세가 집중돼 1.5% 급락하며 871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OCI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렌탈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외 환경가전 사업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코웨이도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이란 식품의약품으로부터 헤어 제품 8종에 대한 화장품 유통판매 인허가 승인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세화피앤씨가 강세를 보였으며, 하반기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IPO를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현대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임. 또한, 애경그룹 계열의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인 애경산업은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하단으로 결정, 예상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며 장중 27%까지 급등하는 등 초강세를 보였으며,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다음달 대규모 전기차 박람회 개최된다는 소식에 2차전지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에프티앤이, 이에스에이 등이 급락했으며, 엘랑비탈이 레드로버의 지분을 보유한 쌍닝유니버설미디어에 대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레드로버가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용
OCI(010060) ▶157,500 (+10.14%)	중국 환경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환경 규제로 카본 케미칼 부문이 빠른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초강세 - 또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중기적으로 고순도 폴리실리콘 공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돼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코웨이(021240) ▶92,300 (+5.61%)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제품 출시 등으로 올해도 국내 환경가전 사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환경가전 사업도 높은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한 주주 가치 극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
애경산업(018250) ▶34,000 (+21.43%)	신규 상장 첫날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경그룹 계열의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 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27% 이상 급등하는 등 강세로 마감 - 주방세제 '트리오', 치약 '2080', 샴푸 '케라시스' 등 생활용품 브랜드와 '에이지투웨니스(AGE 20's)', '루나(LUNA)' 등 인지도가 높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AGE 20's'는 홈쇼핑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 면세점, 백화점, H&B 스토어 등 채널 다각화는 물론 해외 진출을 계획 중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수요 확대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가 주최하는 전기차(EV) 박람회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르노삼성, 테슬라, BMW, 중국 BYD 등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들의 대표모델과 신개념 EV운송수단들이 대거 출품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 - 피앤이솔루션(13190, +7.29%), 에스피지(058610, +5.53%), 삼화콘덴서(001820, +4.64%), 삼화전기(009470, +4.39%), 솔브레인(036830, +4.12%), 엘앤에프(066970, +3.9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메디톡스(086900) ▶711,000 (+4.22%)	- 올해 이노톡스의 임상3상 기대감과 보톡스 국내 시장 점유율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 등으로 신고가 경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477,500 (+3.69%)	- 내년엔 18만ℓ 규모의 제3공장 가동을 앞두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서진시스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서진시스템 (178320)	38,300 (+0.4%)	38,15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가공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방 산업과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 상장 첫 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 예상 - 기존 사업군인 통신장비, 모바일, 반도체 부품 사업 더불어 ESS 및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롯데정밀화학 (004000)	72,400 (-3.7)	75,2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법 이익 급증과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2018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 전망 - 향후 2~3년 동안은 제한적인 증설로 ECH(Epichlorohydrine)와 가성소다 가격은 강세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배당성향은 30%까지 확대될 전망
쌍용양회 (003410)	21,350 (+7.6)	19,85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발전 투자 마무리와 수출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내륙과 해안공장을 모두 보유해 전국권 커버와 13개국 수출이 가능하고 대한시멘트 인수로 슬래그시멘트 시장 장악 -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60%를 배당으로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7% 이상의 배당수익률 예상
동화기업 (025900)	34,050 (-8.2)	37,1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된 VRG동화 제2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 베트남 주택분양 방식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완성형 분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수혜 전망 - 친환경 제품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하우징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전망
SIMPAC Metal (090730)	15,400 (+32.8)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TPC (048770)	6,730 (-0.6)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차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콘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오일뱅크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오일뱅크 (267250)	431,500 (-0.7)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5.3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79,500 (-1.9)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6.6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한솔시큐어 (070300)	7,010 (+18.8)	5,900 (12/28)	19	3	2	272	26.1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8,300 (+39.7)	13,100 (12/28)	92	11	9	1,446	12.4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31,500 (-13.3)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5.5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엠텍 (091120)	17,600 (+0.0)	17,600 (12/28)	191	14	10	659	26.4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3/22(목) 종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496.02	0.44	0.15	3.39	1.16
KOSPI200	323.32	0.53	0.18	3.57	-0.44
대형주	2,421.56	0.56	0.19	3.63	0.10
중형주	2,772.95	0.06	-0.34	-0.60	1.38
소형주	2,234.11	-0.65	0.68	1.86	9.87
KOSDAQ	871.62	-1.57	-2.11	0.16	9.17
KOSDAQ150	1,563.16	-2.26	-2.64	0.44	10.56

수급	3/22(목)	1D	5D	1M	YTD
거래량 (백만 주, 기간 평균)	KOSPI KOSDAQ	480 1,011	412 847	383 871	387 992
거래대금 (십억 원, 기간 평균)	KOSPI KOSDAQ	7,080 6,861	6,121 6,253	6,863 5,415	6,983 6,961

(단위: %, bp)

금리	3/22(목)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29	0.20	2.00	-2.30	15.30
국고채 5년물	2.51	-0.20	0.50	-5.50	16.30
국고채 10년물	2.72	-1.00	1.10	-8.00	25.50
회사채 3년(AAA-)	2.70	-3.20	-0.30	0.50	15.80
회사채 3년(BBB-)	8.88	-4.20	-2.20	-5.00	9.50

(단위: 원, %)

외환	3/22(목)	1D	5D	1M	YTD
원/달러	1072.24	0.01	-0.63	1.12	-0.45
원/100엔	1018.35	-1.06	-1.41	-0.42	-7.02
원/유로	1323.64	-0.70	-0.42	0.44	-3.59
원/위안	169.81	-0.13	-0.73	0.25	-3.40

업종 지수	3/22(목)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614.70	0.15	-0.25	-2.57	-7.2
반도체	2,790.49	-0.93	-2.52	1.95	0.24
헬스케어	4,682.76	-1.95	-0.56	4.49	21.78
은행	938.52	1.66	3.45	-2.38	0.18
에너지화학	2,817.83	1.14	-0.37	3.65	1.94
철강	1942.61	-0.69	-0.09	-4.58	-5.38
방송통신	946.02	-0.2	-1.56	-0.93	-7.84
건설	583.13	-1.07	-0.72	0.18	3.97
증권	796.34	1.56	0.43	1.7	11.76
기계장비	621.1	0.44	1.62	6.33	16.05
보험	1851.03	1.04	0.8	-3.5	-4.4
운송	594.25	-1.19	-1.06	-0.98	2.29
유틸리티	1,229.40	1.32	-0.63	-0.73	4.4

업종 지수	3/22(목)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933.13	-2.61	-1.13	1.49	12.70
소재	1,506.96	0.61	-4.15	0.47	-4.04
산업재	307.72	-2.22	-5.14	-11.32	-1.64
필수소비재	1,078.75	-3.17	-23.13	-9.18	5.58
자유소비재	1,199.30	-0.28	-0.24	1.98	2.58
정보기술	750.58	-1.12	-2.02	-1.83	-1.08
생명기술	5,574.77	-3.63	-0.67	2.69	18.34
문화기술	2,481.83	-0.57	0.22	8.03	10.99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4,035	1,815	1,186	444	66	168	133	23	232	203	61
	매도	4,333	1,607	1,268	288	95	169	148	19	192	276	52
	순매수	-299	208	82	156	-28	-2	-15	4	40	-73	8
	2018년 1월 누계	-380	160	383	19	-21	-220	-57	89	352	221	-164
	2018년 누계	-67	560	-1,181	-2,598	653	761	-111	-43	-168	326	688
코스닥	매수	5,948	584	241	86	18	48	70	5	34	28	40
	매도	5,956	592	289	44	12	72	58	6	30	19	72
	순매수	-9	-8	48	42	6	-24	12	-1	4	9	-32
	2018년 1월 누계	-484	381	445	170	44	59	139	-13	43	2	-342
	2018년 누계	1,598	-751	7	287	-4	491	-511	-67	-205	16	-854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622	필수소비재	-588	반도체	542	건설,건축관련	-96
	화학	239	디스플레이	-189	소프트웨어	526	기계	-95
	조선	194	소프트웨어	-182	화학	381	철강	-78
	IT가전	175	철강	-124	IT하드웨어	239	자동차	-56
	건설,건축관련	160	화장품,의류,완구	-91	건강관리	185	화장품,의류,완구	-37
종목	삼성전자	397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70	삼성전자	430	셀트리온	-218
	삼성바이오로직스	295	애경산업	-506	삼성바이오로직스	415	LG이노텍	-101
	셀트리온	212	SK하이닉스	-478	SK하이닉스	306	현대엘리베이	-93
	삼성전기	172	LG디스플레이	-182	삼성전기	299	우리은행	-87
	OCI	148	아모레퍼시픽	-128	OCI	213	신한지주	-63
	만도	129	삼성물산	-122	엔씨소프트	166	만도	-47
	현대중공업	114	KODEX 200TR	-118	카카오	151	KT&G	-39
	삼성엔지니어링	95	POSCO	-102	하나금융지주	150	삼성중공업	-38
	포스코대우	85	KT&G	-90	NAVER	140	현대건설	-35
	삼성SDI	72	카카오	-81	KODEX 200TR	118	현대글로비스	-34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소프트웨어	229	디스플레이	-106	소프트웨어	134	건강관리	-190
	건강관리	189	반도체	-49	IT가전	87	IT하드웨어	-173
	화학	52	IT하드웨어	-14	은행	67	디스플레이	-54
	IT가전	48	건설,건축관련	-9	필수소비재	41	조선	-29
	미디어,교육	42	은행	-8	반도체	31	소매(유통)	-18
종목	휴젤	78	서울반도체	-66	카페24	87	신라젠	-137
	카페24	70	원익IPS	-33	텍셀네트컴	71	인터플렉스	-97
	텍셀네트컴	61	덕산네오룩스	-28	엘앤에프	53	셀트리온헬스케어	-68
	웹젠	59	이오테크닉스	-28	네이처셀	44	서울반도체	-31
	메디톡스	56	엔지켐생명과학	-26	삼천당제약	33	메디톡스	-31
	에코프로	48	동진세미켐	-24	피앤이솔루션	32	제넥신	-29
	엘앤에프	44	메디포스트	-23	우리기술투자	31	에이치엘비	-29
	CJ E&M	33	SK머티리얼즈	-19	CMG제약	27	비에이치	-26
	셀트리온헬스케어	28	아모텍	-15	더블유게임즈	25	컴투스	-26
	컴투스	24	더블유게임즈	-14	웹젠	24	인바디	-2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32,393	2,589,000	1.41	1.61
SK하이닉스	64,501	88,600	0.23	15.82
셀트리온	38,088	310,500	-0.32	40.43
현대차	33,592	152,500	-1.29	-2.24
삼성바이오로직스	31,594	477,500	3.69	28.71
POSCO	29,687	340,500	-1.45	2.41
LG화학	28,872	409,000	-0.24	0.99
KB금융	26,717	63,900	1.43	0.79
NAVER	26,469	803,000	1.13	-7.70
삼성물산	25,039	132,000	-1.12	4.76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4,784	107,500	-1.83	-1.0
신라젠	7,726	113,300	-9.86	21.2
메디톡스	4,022	711,000	4.22	46.6
바이로메드	3,636	227,900	-5.44	39.6
CJ E&M	3,455	89,200	-0.11	-8.7
티슈진	3,002	49,300	-5.74	-4.8
포스코켐텍	2,915	49,350	2.81	24.0
셀트리온제약	2,882	86,400	-0.80	41.2
로엔	2,749	108,700	-1.18	-3.4
스튜디오드래곤	2,745	97,900	-0.61	50.6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16.95	-0.07	-1.06	-0.24	0.76
	MSCI 선진국	2,109.18	-0.08	-1.13	-0.38	0.27
	MSCI 신흥국	1,209.62	-0.02	-0.54	0.73	4.42
DM	S&P500	2,711.93	-0.18	-1.37	0.29	1.43
	Dow Jones	24,682.31	-0.18	-0.31	-1.12	-0.15
	Nasdaq	7,345.29	-0.26	-2.02	1.88	6.40
	Russell 2000	1,579.30	0.57	-0.32	3.22	2.85
	영국 FTSE 100	6,998.86	-0.57	-1.97	-3.50	-8.96
	프랑스 CAC	5,191.82	-0.91	-1.43	-2.21	-2.27
	독일 DAX 30	12,186.41	-1.00	-1.29	-2.21	-5.66
	스페인 IBEX	9,555.10	-0.79	-1.33	-3.25	-4.87
	일본 니케이	21,591.99	0.99	-0.85	-1.72	-5.15
	홍콩 항셱	31,071.05	-1.09	-1.49	0.34	3.85
	EM	코스피	2,496.02	0.44	0.15	3.39
코스닥		871.62	-1.57	-2.11	0.16	9.17
중국 상해종합		3,263.48	-0.53	-0.84	-0.16	-1.32
홍콩 H지수		12,427.55	-0.75	-2.30	-0.81	6.13
인도 Sensex		32,999.58	-0.41	-2.04	-2.42	-3.10
베트남 VN		1,172.36	0.26	2.95	8.95	19.11
인도네시아 JCI		6,254.07	-0.93	-1.07	-5.14	-1.60
러시아 RTS		1,269.81	-0.02	1.81	-2.40	9.99
브라질 Bovespa		84,976.59	0.97	-1.25	-1.97	11.22
멕시코 Mexbol		47,521.84	0.95	-2.13	-2.96	-3.71
글로벌 업종		에너지	171.81	-0.04	1.79	0.55
	소재	217.04	-0.05	-0.65	-1.58	0.57
	산업재	292.65	-0.12	-0.61	-0.13	0.14
	경기소비재	262.63	-0.14	-0.66	-0.75	-0.98
	필수소비재	296.80	-0.23	-1.49	-0.47	-0.92
	헬스케어	534.75	-0.21	-1.69	-1.13	1.25
	금융	185.31	-0.33	-0.65	-0.79	1.80
	IT	390.40	-0.14	-1.97	3.51	7.43
	통신서비스	173.16	-0.26	-1.51	-0.24	-2.27
	유틸리티	166.86	-0.27	-0.27	1.91	-2.23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89.66	-0.13	-0.53	-0.08	-2.67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8.57	0.20	0.42	1.22	-0.43
미주	브라질	3.27	1.18	-0.37	-0.20	1.21
	멕시코	18.47	-0.20	1.22	0.71	6.41
아시아	한국	1,072.24	0.01	-0.63	1.12	-0.45
	일본	105.61	0.42	0.69	1.08	6.70
	중국	6.33	-0.14	-0.16	0.32	2.76
	대만	1.29	0.49	0.91	1.53	1.02
	인도	65.09	0.18	-0.25	-0.07	-1.87
유럽	유로존	1.23	-0.02	0.25	0.05	2.76
	영국	1.42	0.06	1.53	1.39	4.71
	러시아	56.89	-0.04	0.96	-0.71	1.40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85	-3.66	1.84	-7.43	44.10
	캐나다	2.26	4.70	9.80	-9.50	21.30
	브라질(USD)	9.43	-10.50	-5.70	-44.20	-82.70
	멕시코	7.56	-0.50	-3.20	-9.90	-10.20
	유럽	독일	0.56	-3.70	-2.10	-15.10
	영국	1.48	-4.30	4.60	-6.20	29.40
	프랑스	0.79	-3.80	-3.10	-19.00	0.60
	이탈리아	1.90	-3.40	-8.80	-17.60	-11.70
	러시아	4.57	0.40	4.90	19.10	69.70
아시아	한국	2.72	-1.00	1.10	-8.00	25.50
	일본	0.04	-0.50	-0.80	-1.80	-1.00
	중국	3.78	-3.40	-7.00	-10.80	-12.00
	호주	2.70	0.20	-0.50	-17.30	7.00
	인도	7.57	-1.40	0.60	-17.70	24.3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53.47	1.64	2.75	1.03	2.49
	LMEX 지수	3,249.90	0.71	-1.00	-5.20	-4.94
	CRB 지수	440.42	0.06	-1.30	-0.39	1.87
에너지	원유(WTI)	64.74	-0.66	5.80	3.14	7.15
	원유(Brent)	68.88	-0.85	5.77	3.75	3.01
	천연가스	2.65	0.38	-1.23	0.53	-10.33
금속	금	1,329.20	0.58	0.87	-0.11	1.52
	은	16.51	0.90	0.93	-0.49	-3.73
	구리	6,793.00	0.56	-2.80	-4.58	-6.26
	아연	3,249.00	1.44	0.70	-8.25	-2.11
	알루미늄	2,081.00	0.24	-0.38	-5.45	-8.25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92.78	0.09	-2.84	-1.00	3.77
	옥수수	377.00	0.53	-2.52	0.60	5.01
	밀	453.75	0.06	-5.22	-2.26	3.07
	대두	1,031.00	0.12	-0.94	-1.17	5.96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9.11	7.00	15.19	2.08	73.10
유럽	VSTOXX	16.19	8.99	6.33	-13.38	19.82
한국	VKOSPI	16.24	-2.93	4.64	-3.62	34.66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美> 2월 CPI MoM (n/a, 0.2%, 0.5%) 日> 2월 PPI YoY (2.5%, 2.5%, 2.7%) 1월 3차 산업지수 MoM (-0.6%, -0.3%, 0.0%)	韓> 2월 실업률 SA (3.6%, 3.7%, 3.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9%, n/a, 0.3%) 2월 소매판매 추정 MoM (-0.1%, 0.3%, -0.1%) 2월 PPI 최종수요 MoM (0.2%, 0.1%, 0.4%) 日> 1월 핵심기계수주 MoM (8.2%, 5.2%, -11.9%)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26, 228, 235)	美> 2월 광공업생산 MoM (1.1%, 0.3%, -0.1%)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102.0, 99.3, 99.7) 유럽> 2월 CPI YoY (1.1%, 1.2%, 1.3%) 日> 1월 광공업생산 (-6.8%, n/a, -6.6%)
19	20	21	22	23
	유럽> 3월 ZEW 서베이 예상 (13.4, n/a, 29.3) 3월 소비자기대지수 (0.1, 0.0, 0.1)	美> FOMC 금리결정 (1.75%, 1.75%, 1.5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1%, n/a, 0.9%) 2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5.54, 5.40, 5.38)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25, 226) 3월 마켓 제조업 PMI (n/a, 55.5, 55.3) 2월 선행지수 (n/a, 0.5%, 1.0%) 유럽> 3월 유로존 제조업 PMI (n/a, 58.2, 58.6) 日> 1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1.8%, -1.8%, 0.5%)	美> 2월 내구재주문 (n/a, 1.6%, -3.6%) 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24, 593) 日> 2월 CPI YoY (n/a, 1.5%, 1.4%)
26	27	28	29	30
	美>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n/a, 130.5, 130.8) 유럽> 2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6%) 3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0.1)	韓> 4Q GDP YoY (n/a, n/a, 3.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1%) 2월 도매재고 MoM (n/a, n/a, 0.8%) 4Q GDP 연간화 QoQ (n/a, n/a, 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2월 개인소비지수 (n/a, n/a, 0.2%)	日> 2월 유효구인배율 (n/a, n/a, 1.59) 2월 실업률 (n/a, n/a, 2.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